

권두언



생명존중과 평등사회를 지향하셨던 부처님의 전법(傳法)활동은 오늘날 불교사회복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
불교의 연기(緣起)사상은 모든 세계가 하나의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 사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, 시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또한 자신의 본성을 찾는 ‘수행’과 많은 이들이 행복에 이르도록 돕는 ‘이타행’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.

우리는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동체대비(同體大悲), 자리이타(自利利他)의 보살행으로 고통 받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해 따뜻한 온정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. 그래서 온 국민, 전 세계가 행복해지는 대승(大乘)의 길을 열어야 하겠습니까. 그리하여 불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불기 2553(2009)년 12월

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자승